

13일 Market Index			
↓ 코스피	2417.08	↓ 코스닥	689.65
	(-65.49)		(-20.87)
↑ 금리 (미국 9년)	2.939	↑ 환율 (원·달러)	1404.75
	(+0.039)		(+1.25)

시장 불안한데 계열사 파업까지 현대차그룹 '세계2위' 도약 제동

현대트랜시스, 노사 갈등 장기화 한때 파업으로 변속기 공급 차질 파업 확대시 '글로벌 톱3'도 위태
트럼프 美 사업 불확실성 증가 '메타플랜트' 전략 차질 불가피

한국 경제를 이끌고 있는 현대자동차그룹이 내외외환에 시달리고 있다. 안으로는 계열 부품사의 임금 인상 요구에 따른 잇따라 파업으로 완성차 생산에 발목이 잡혔으며 밖에서는 글로벌 완성차 시장 위축과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대외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의 부품 계열사인 현대트랜시스와 현대위아, 현대제철 등은 현대차, 기아와 임금



현대차그룹 양재동 본사.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고 주장하며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현대트랜시스의 경우 노조의 파업으로 변속기 공급이 차질을 빚으면서 SUV 코나를 생산하는 현대차 울산 1공장 1라인을 포함해 1공장 전체가 전면 가동 중단되기도 했다. 이에 현대트랜시스는 지난 11일 파업 종료와 함께 회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경영체제 도입을 선언했지만 노사간 갈등은 지속되는 분위기다.

현대트랜시스노조는 파업을 중단하지만 특근과 잔업은 계속 거부하기로 했다. 12일에도 서울 용산구에 있는 정 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자택 주변에서 시위를 벌이면서 임금 인상 요구를 계속하고 있다.

만약 현대제철과 현대위아 노조도 파업에 합류할 경우 현대차·기아의 생산 차질은 더욱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다. 현대차그룹은 계열사 파업이 확대될 경우 글로벌 판매량 3위 자리도 안심할 수 없다. 지난해 글로벌 총 판매량은 730만 4000대를 기록했다. 1위 도요타 그룹은 1123만 3000대, 폭스바겐그룹은 942만대를 판매하며 2위에 이름을 올렸다. 현대차그룹에 이어 4위에는 르노·닛산·미쓰비시 얼라이언스가 639만 9000대를 판매하며 현대차그룹을 추격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깊은 고민에 빠졌다. 역대 최고 실적을 견인한 미국 사업을 어떻게 전개할지 여부다.

현대차그룹의 글로벌 완성차 판매에서 미국 시장의 비중은 지난해 판매량(730만 4000대) 중 23%를 차지할 정도다. 중국을 비롯해 신흥 시장에서의 판매량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미국 시장은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곳이다.

하지만 현대차는 미국 시장에서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태다. 미국에 10조 원 이상의 자금을 투입해 대규모 전기차 공장인 '메타플랜트'를 조성했지만, 전기차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비판적인 입장을 가진 트럼프 당선인의 집권으로 당초 세웠던 전략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현대차그룹은 글로벌 2위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지만 부품 계열사의 파업으로 발목이 잡힌 상태"라며 "글로벌 브랜드 위상은 물론 국가적인 손해를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트럼프 당선인 재집권과 관련해 "그동안 미국의 정책 추진 방식을 보면 복잡하게 정책을 설계해놓고 유예 조치를 해왔다"며 "현대차그룹은 트럼프 당선인 재집권을 염두하고 다양한 시나리오를 준비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문 기자 ysw@metroseoul.co.kr



수능 시험장 확인하는 수험생들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예비소집일인 13일 서울 금천구 동일여자고등학교를 찾은 수험생들이 시험장을 확인하고 있다. <관련기사 2면> /손진영 기자 son@

"유증 철회... 주주들 혼란에 사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기자회견 이사회 의장직 빠르시일 내 '사퇴' 경영권 분쟁 연말 표대결서 판가름



직후 상반되는 성격의 유상증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논란이 발생했다. 영풍·MBK 연합과의 경영권 분쟁에서 지분을 우위를 점하기 위해 회사가 돈을 빌리고는 주주에게 빚을 갚게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불공정거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조사에 착수했고 지난 6일 고려아연에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

"고려아연 이사회는 일반 공모 유상증자를 관련 법규와 정관 등이 정한 절차에 따라 철회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사진)은 13일 서울 중구 대한상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주주들의 우려와 시장 혼란을 견뎌야 받아들이고 주주 보호와 시장 안정을 도모하는 최선의 방안이라는 판단에서다.

최 회장은 이어 "빠른 시일 내로 이사회 의장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은 지난 10월 30일 발행주식의 약 20%에 해당하는 보통주 373만 2650주를 주당 67만원에 신규 발행하는 대규모 유상증자 계획을 공표한 바 있다.

당시 이를 위한 조달 금액은 2조 5000억원이며 이 중 2조 3000억원이 차입금 상황에 쓰인다고 공시했다. 유상증자가 성공했다면 최 회장 측은 우호 지분 3~4%를 확보할 수 있었다.

그러나 자사주 공개매수를 단행한

최 회장은 "시장 반응과 사정 변경은 당초 일반 공모 유상증자를 추진할 당시 회사와 이사회가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웠던 상황"이라며 "이로 인해 초래된 시장 혼란과 주주분들의 우려에 대해서 겸허한 마음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일반 투자자 중심의 다양하고 독립적인 주주 기반을 강화하고자 도모했던 일이었으나 간박하고 절박한 상황 속에서 충분히 사전에 기존 주주님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전했다.

<4면에 계속>

/차현정 기자 hyeon@

달러·코인 '트럼프 특수'... 韓 증시는 소외

코스피 2.6% 급락... 2410대 마감 시총 1위 삼성전자 '신저가' 경신 비트코인 사상 최초 9만달러 진입

코스피가 환율·금리 급등 압박에 2410선까지 무너지는 등 '트럼프 랠리'에서 철저히 소외되고 있다. 반면, '트럼프 트레이드' 대표 수혜 자산으로 꼽히는 비트코인은 최고가를 갈아치우면서 트럼프 특수를 누리고 있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2.64% 급락하면서 연중 최저치인 2417.08에 마감했다. 코스피 시가총액도 지난 8월 '블랙 먼데이' 이후 최초로 2000조원이 붕괴됐다. <관련기사 4면>

코스피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이 확실시 됐던 6일부터 6.20% 떨어졌다. 미국 등 주요 글로벌 지수들은 트럼프 랠리를 펼치고 있지만 코스피는 2500선이 붕괴되고, 코스닥도 700선이 깨지는 등 폭락하는 모습이다. 코스피는 올해 상반기 이후 하락세를 지속하며 박스권에 갇혀 있었던 만큼 투자자들의 이탈 속도가 가속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국내 주식시장 하루 거래대금은 17조 7643억원으로 올해 1월 일평균 거래대금이었던 약 19조 3731억원보다 약 2조 원가량 못미쳤다. 미국 대선 전 날이었던 5일에도 관망세를 보이며 13조 683억원까지 쪼그라들었다.

더불어 코스피 대장주인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도 신저가를 경신하는 등

위기를 보이면서 국내 증시에 대한 불확실성이 극도로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최근 3거래일 연속 신저가를 경신하면서 5만원선을 위협받고 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은 지난달 30일부터 11거래일 연속 삼성전자를 순매도하고 있다.

미래셋증권 디지털리서치팀은 "트럼프 집권 2기의 영향으로 국내 반도체주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삼성전자는 최근 7거래일 중 6거래일을 하락했다"며 "이와 관계없이 초반 상승하던 SK하이닉스도 오름폭을 반납하면서 하락권으로 진입하는 등 반도체업종이 극히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4면에 계속>

/신하은 기자 godhe@

뉴스터미널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한 총리, 북한군 우크라 참전에 "미국 등 국제사회와 협의해 대응" /사진 뉴스스
▲ 민주, '명태군 대통령명칭 동승 의혹' 서울역 현장 점검

▲ 국민의힘, 오늘 '특별감찰관' 의총... 표결 없이 합의할 듯
▲ 국힘 계사판 한동훈 이름 '尹부부 비방글'... 경찰, 수사 착수



▲ 친명계 혁신회의, 이재명 무죄 탄원 제출... "103만명 참여" /사진 뉴스스
▲ 문다혜 '제주 별장서 미등록 숙박업' 혐의 모두 시인